

2020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모의논술 채점위원 총평

인문계열 문항 1번

〈인문계열〉 1번 문항의 출제 방향은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가 왜 문제인지 빅데이터 시대와 연결지어 생각해 보고, 이를 투명성과 주체성의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술하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1번 문항 답안은 내용 편차가 거의 없을 만큼 무난하게 작성되었다.

1등급으로 선정된 답안들을 보면, 문제상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였고 발문의 순서대로 체계를 잡아 단락별 내용 구성이 명쾌하였다. 각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였고 관점과 키워드를 찾아내어, 질문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세 개의 제시문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답안을 기술하였다. 자신의 언어로 환문하여 새롭게 표현하였으며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가독력을 높여 주었다.

반면 낮은 등급을 받은 답안의 경우 출제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중언부언 내용이 반복되었거나 단락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문장도 길고 매끄럽지 않았다. 내용이 논리로 연결되지 않고 ‘접속사’를 지나치게 사용하여 각 문장들을 이어가거나, ‘나는’을 주어로 빈번하게 사용한 경우 낮은 등급을 주었다. 오프라인 논술의 경우, 정서법에 따라 깔끔하게 작성된 답안지는 채점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답안 내용 못지않게 중요하다.

2020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모의논술 채점위원 총평

인문계열문항 2번

이번 모의 논술 2번은 <가>의 매미와 <나>의 서술자의 공통 가치관을 찾는 문제, 그리고 그 가치관에서 볼 때 <다>의 ‘독립생활자’에 대한 평가를 묻는 문제였다.

우리는 매미의 생각과 행동에서 보이는 몇 요소들을 통해 그가 ‘안분지족’ 하는 존재, <나>의 서술자의 진술을 통해 그가 ‘우리는 거대한 존재가 아니라 작은 존재일 뿐’이라는 가치관을 포착하기를 바랐다. 그렇기에 이 둘의 공통점은 “자신보다 큰 것에 대한 집착(야심)을 버리는 것”으로 기술할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이 점을 포착한 학생이 많았다는 점이 좋았다. 다음으로, 이러한 가치관에서 볼 때 ‘독립생활자’의 평가는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내용에서 거듭 강조된 ‘야심’은 “보다 큰 것에 대한 지향을 경계”하는 <가>와 <나>의 공통점에 배치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 역시 절반 정도의 학생이 잘 풀어내고 있었다.

총평의 지면을 빌어서 세 가지 정도의, 논술 일반에 대한 조언을 하고 싶다. 논술을 할 때는 첫째, 지문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지 말고 재구성하여 요약적으로 제시할 것, 둘째, 단락을 비슷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기술할 것, 셋째, 정확한 어휘로 표현할 것이 그것이다. 논술은 글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학생을 뽑기 위한 시험이다. 그대로 반복한다는 것은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해 편법을 쓰는 것으로 평가된다. 단락을 나누지 않는 것은 생각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글쓰기의 기초가 잘못 잡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부정확한 어휘가 구사되어 있는 것은 독서의 깊이가 얇고 표현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점을 유념하면서 본 논술을 준비하길 바란다.

2020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모의논술 채점위원 총평

자 연 계 열 문 항

제시문 <가>에서는 절대부등식을 증명하기 위하여 로그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문제 1-1(a)>에서는 제시문 <가>에서 소개된 증명 방법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절대부등식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문제 1-1(b)>에서는 제시문 <가>에서 제시된 부등식을 활용하여 제시된 식의 최솟값을 찾을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시문 <나>에서는 닫힌구간 $[0, 1]$ 에서 증가하는 두 함수에 대한 적분형태의 부등식과 이에 대한 증명을 소개하고, 이 두 함수를 일반화한 함수에 대한 같은 종류의 적분형태의 부등식을 생각한다. 또한 이 적분형태의 부등식에 대응하는 수열에 대한 부등식을 생각한다. <문제 1-2(a)>에서는 제시문 <나>의 닫힌구간 $[0, 1]$ 에서 증가하는 두 함수에 대한 적분형태의 부등식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일반화한 함수에 대한 적분형태의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찾을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문제 1-2(b)>에서는 제시문 <나>에서 주어진 수열에 대한 부등식의 증명을 이해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시문 <다>에서는 직사각형과 한 점이 만족시켜야할 성질을 다루고 이로부터 귀류법을 이용하여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직사각형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한다. <문제 1-3(a)>에서는 제시문 <다>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였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같은 상황에서 벡터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문제 1-3(b)>에서는 제시문 <다>와 비슷한 상황에서 귀류법을 바르게 적용하여 원하는 명제를 보일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